

# 장성군, 군민이 건강한 도시 만든다

## ‘뚜벅뚜벅 건강걷기’ 사업 운영 신혼부부 건강검진 1→3회 확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 신규 지원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원책 발굴”

장성군이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보건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에 나섰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뚜벅뚜벅 건강걷기’ 사업을 운영한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추후 걷기 선포식도 열어 걷기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을 기울인다.

임신·출산정책도 확대한다. 군은 신혼(예비)부부의 사전건강검진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원의 검진비를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여성 1명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했다.

신규사업인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관심을 모은다. 정관 복원시술은 최대 50만원, 난관 복원시술은 최대 1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전남 시군 중 장성군만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을 방문해 구강 검진, 치아 관리 교육, 불소 도포 등 예방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4학년에서 올해 1·2·4·5학년으로 확대됐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하는 ‘치매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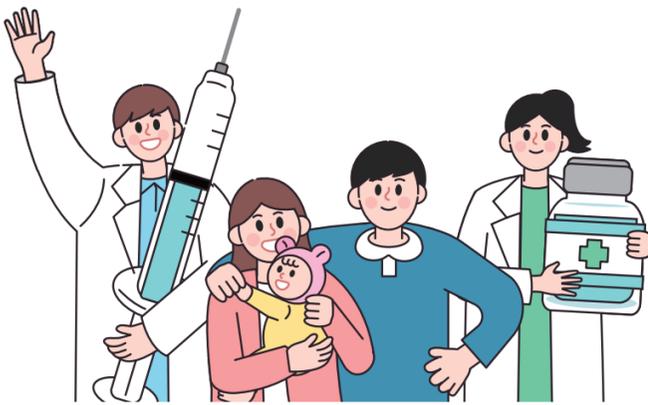
케어 안심하우스 사업’도 주목된다.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안전바 장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예

방교육 메타버스 공연, 고혈압·당뇨병 등 특교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한 삶을 아낌없이 지원해 살고 싶은 장성, 행복한 일상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의료기관 합동 안전점검 장성군·장성소방서

장성군과 장성소방서는 최근 관내 병원·요양병원 2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전기시설, 화재 시 환자 대피방안, 화재 안전 매뉴얼 구축 등으로, 장성군보건소는 소방계획서 작성법을 알 수 있는 책자를 배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가 화재 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했다”며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청 직원들이 의료기관의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병원·요양병원 2곳을 대상으로 화재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함평군, 4년간 최대 2000만원

함평군이 기업들의 정규직 고용 촉진과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청년 지원에 나선다.

17일 함평군은 2025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4년간 최대 2000만원(기업 500만원·청년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전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입사 1~4년 차(2022~2025년 입사)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로 우편 또는 방문(061-320-2102)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 화순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 체험 운영

3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은 17일 군민들의 창의적 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목공예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맞춤형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생활 속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 만들기 및 DIY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보육시설과 학교 등에 찾아가는 방문 수업으로 진행해 더욱 많은 이들이 목재 문화를 접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재료비와 체험료는 자부담으로 품목별로 상이하다.

성인 프로그램에서는 평소 다룰 일이 없는 목재를 활용해 실생활에서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월부터 12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061-374-3722) 또는 산림과에 접수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과 산림소득팀(061-379-3721)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근 화순군 산림과장은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함평군, 경력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9급 시설직 등 19명

함평군이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경력직(시설·운전직) 공무원 1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8명 등 총 19명을 신규 채용한다.

17일 함평군은 경력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이 내달 6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군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9급 시설직

10명(일반토목 7명·건축 3명), 9급 운전직 1명 등 총 11명을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는 변호사 1명,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6명, 종합검정실·가축분뇨 분석실 전문인력 1명 등 8명을 선발한다.

응시 자격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도에 되어 있거나 전남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1년 이상인 18세 이상이다.

임용시험 일정은 3월5일까지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3월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3월15일, 면접시험은 3월21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3월 21일 실시할 계획이다.

임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의 위원회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함평군,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함평군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17일 함평군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오는 12월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과일·육류 등의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으며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만원부터 4인 10만원, 6인 13만1000원 등 10명 이상의 가구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전화(ARS),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대리 신청 및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함평군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군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사무소에 배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먹거리 안전망 기반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영광군,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등

영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추가 지원한다.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체납도 없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www.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영광군청 환경과(061-350-4858)로 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전남일보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